중건 후 136 년 만에 경복궁 근정전 전면 보수

김광식 (주)진강건설 회장

" 밑지긴 했으나 일그러진 민족사의 원형 되찾아 보람 "

경복궁의 정전(正殿)인 근정전이 3년 10 개월 간의 보수 공사 끝에 말끔히 새 단장을 하였다. 2년여 전에 낙성을 본 흥례문 복원 공사에 이은 문화상의 쾌거라 할 수 있다. 2000 년 1월부터 72 억원을 들여 진행해 온 근정전 복원 사업은 2층 전체를 해체하고 건물을 떠받치는 주기둥 4개를 교체하는 공사로, 단일 건물 문화재 공사로는 국내 최대 규모였다.

경복궁 근정전 복원 사업을 총지휘한 이는 김광식 진강건설 회장. 그는 " 조선조 궁궐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대표적 건축물인 근정전을 130 여년 만에 고치는 대역사를 맡아 시공한 데 대해 커다란 보람을 느낀다"고 말했다. 특히, 그는 공기 연장으로 관리비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 밑지는 사업이 되었지만 이 공사가 단순한 궁궐 보수 공사가 아니라 그동안 일그러진 우리 민족사의 원형을 되찾았다는 데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.

근정전 보수 공사는 당초 지난해 열린 월드컵 축구대회에 맞춰 완료될 예정이었다. 그러나, 훼손 및 부식 상태가 예상보다 훨씬 더 심해 전면 공사로 대체되면서 준공 일자가 늦어졌다. 그래서 처음 근정전 보수 공사로 책정된 공사비도 29 억원에 불과하였다. " 기와를 뜯고 하층을 해체해보니 건물을 지탱하는 귀고주 네 개 가운데 세 개는 추녀가 꽂히는 부분이 부러졌고, 나머지 한 개도 휘어서 금이 갔었습니다. 그 상태로는 단순 보수가 불가능해 결국 이들 기둥을 전면 교체하는 공사로 바뀌면서 일이 커진 것이지요."

자연히 공사에서 가장 중점을 두게 된 분야는 지붕의 하중을 줄이는 것이었다. 지붕 공사를 예전 기법으로 할 경우, 100 여 년 후에 또다시 대단위 공사가 불가피했기 때문이다. 김광식 회장은 문화재청 전문위원들과 10 번이 넘는 협의를 거쳐 지붕 안을 채우는 보토와 그 속에 넣는 목재인 적심을 줄이고 빈 공간이 생기도록 하는 헛집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지붕의 무게를 60 % 가량 줄였다. " 국가적으로, 또 문화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 방안을 도출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 공사 기간 3년 10 개월 중 실제 일한 기간은 3년 남짓이었습니다."

김광식 회장은 지난 35 년 동안 문화재 공사를 수행해 왔다. 낙안읍성 민속마을, 남산골 한옥마을, 진도 남도석성 등 굵직한 문화재 복원 공사가 그의 지휘 아래 이루어졌다. 창덕궁 내 희정당 보수 및 완도 청해진 복원 공사도 한창 진행 중이다. 그런 만큼 회사에서 문화재 공사가 차지하는 비중도 절반을 넘는다. 문화재 사업이 까다롭고 주택 사업 등에 비해 수익성도 낮지만 가장 잘 아는 분야인 데다 보람도 커 천직으로 여기기 때문이다.

문화재 공사에서 김광식 회장이 가장 중시하는 점은 기능자를 잘 써야 한다는 것이다. 30년 넘게 문화재 사업을 해오면서 체득한 신념이다. 이러한 신념은 근정전 복원 공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. 신응수 대목장, 이근복 기와장, 홍창원 단청장 등 각 공종에 이 시대 최고의 고건축 기능 보유자들이 참여하였다. 이들의 오랜 경험과 매운 손끝이라야만 충실한 원형 복원이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. 하지만 그는 이러한 기능 보유자들을 이을 젊은이들이 전무한 현실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피력하였다. " 국내에는 문화재 기능자를 양성하는 공공 기관이나 학원이 한 곳도 없습니다. 모두 업체에서 길러내고 있지요. 그나마 그런 업체 수도 손에 꼽을 지경입니다. 1년 문화재 공사 예산이 다리 1개를 짓는 공사비보다 적은 2,000 억원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하면 젊은이들만 탓할 바는 아니지요. ' 문화가 국력 '이라는 말을 허투루 넘겨서는 안 될 때입니다."

이형우 · 기자 · hwlee@cerik.re.kr